| 불자 세상보기 |

부처님오신날과 부모님 은혜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중학생되며 법회에 다닌 나는
부모님께 절에 오길 권유했다

어느 부처님오신날 아버지는
취흥에 저녁 무렵 절에 왔다
"절 오라" 아들 당부 잊지않고

출가 후 내 속가제자된 어머니
11년간 빠짐없이 강의 개근 중
그 은혜, 가슴 한켠이 뻐근하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입사원서를 내고 면접시험장에 간 청년에게 그 회사의 대표가 물었다. "어머니 홀로 계신다고요?" "네, 홀로 계십니다."

대표가 재차 물었다. "경제 형편은 좋은가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남의 집 삯빨래를 해서 저희를 키웠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청년에게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린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저녁에 집에 간 청년은 나뭇등걸 같은 어머니 손을 잡다가 터뜨린 울음을 그치지 못해 벌겋게 된 눈을 해서 그 대표를 다음날 만났다. 마음을 살핀 대표는 청년을 입사시켰다.

창밖으로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새를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네요." "아, 그래. 까치구나, 까치야."

조금 있다가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새의 이름을 물었다. "까치라고요." "그래, 까치지. 그렇고 말고." 또 조금 있다가 새의 이름을 물었다. "까치라고 했잖아요?"

높아진 목소리를 멀리서 들은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가져와 펼쳐주었다. 거기에는 아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아버지에게 새의 이름을 물었던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아들이 참새의 이름을 서른 번이나 물어보는 것이 참으로 대견해서 또박 또박 서른 번 이름을 불러서 알게 해주었다. "참새"라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지나는 산 길목에 '불교학생법회' 안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명법사라는 작은 절에 가서 처음으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왠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나의 믿음은 날로 늘어나고 청년회 회장, 어린이 법회 교사, 학생회 지도법사 등을 맡으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안색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가끔 절에 한 번 오시라는 권유에도 빙그레 웃으면서 "아드님이나 잘 다니셔"라고 하셨다.

그러던 어느 부처님오신날 사찰에 오시라고 말씀드렸다. 그 때는 '화전놀이', '관등놀이'를 하던 시절이었다. 어른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휴가'로서의 의미를 갖는 날이 '초파일'이었다. 벗님들과 약주도 드시고 노래도 부르고 노시다가 아들 생각이 났던지 해질 무렵에서야 절에 찾아오셨다.

취흥이 도도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아버지를 부축해서 도량 곳곳과 법당을 소개하고 스님들께 소개드렸다. 스님들도 참으로 기뻐하셨고 나도 속으로 정말이지 기뻤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님오신날 약주에 취해서 비틀비틀 오셨던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취기에도 아들의 당부를 기억하고 찾아오셨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비틀거리면서 찾아오셨던 아버지는 저 세상으로 가시고 나는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었다. 부모를 모실 수 있고 형제를 돌볼 수도 있다고 해서 태고종에 출가했는데 복덕을 쌓지 못해서 그런지 모시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어머니는 내가 문을 연 열린선원 불교아카데미에 1기로 등록해서 수료한 뒤 3귀의 · 5계 수계를 받아 '여도(如度)'라는 법명을 받아 나의 속가제자가 되셨다. 그 뒤로도 계속 개근하여 이번에 25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11년 동안 강의를 빼 먹은 일이 없다. 숨 살피는 선(禪)도 하고 말씀을 주제로 참구하는 화두참선도 하신다. 그런데 근래에는 강의 날짜를 잊기도 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빠지기도 하신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마음이 아프다.



空으로 본 세상만사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자동차 유리는 왜 깨졌을까

지난해 2학기, 계룡산에 자리한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로 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자동차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연구소 들어가기 전 이미 춘천에 위치한 대학교의 2학기 강의를 받아놓은 터라 연구소 업무가 시작되면서 1주일에 한 번 계룡산을 떠나 춘천까지 가야했다. 그럼에도 시간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우연히 디자인도, 색상도, 가격도 마음에 드는 평소 원하던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다. 어찌나 마음에 드는지 닦고 또 닦고 애지중지 몰고 다녔다.

하루는 세차를 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붙잡고 달려가는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작은 돌조각이 튀어와 앞 유리를 때렸고, 너무 놀라 차를 세우고 가만히 보니 엄지손톱 크기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모양 같은 흠집이 생겨버렸다. 이내 놀란 마음은 사라지고 분노가 끓어올랐다. 우째 이런 일이! 하지만 그런 내 마음과는 아랑곳없이 며칠 지나지 않아 점점 유리에 금이 커져서 결국 적지 않은 돈을 내고 갈아야만 했다. 차량 구입 후 약 2주 만의 일이었다. 그러다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온갖 '가정법'이 다 떠올랐다.

만약 내가 그때 단 1초만 그 지점을 늦게 지나갔거나, 혹은 빨리 지나갔더라면 돌의 속력이 유리를 깰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차장에서 참 친절했던 세차장 직원이 건네준 커피를 마시지 말고 바로 출발했어야했다. 아니다. 내가 그날 운전을 한 건 오랜만에 연락을 준 지인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것만도 원인은 아닌 듯하다. 내가 만약 그날 집에서 조금 일찍 혹은 조금 늦게 출발했더라도 그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터.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니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최고의 가정은, 차를 사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2학기 강의를 받지 말았어야 했고, 연구소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고, 불교를 전공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어야 했고…. 결국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였다!

이렇게 아무 소용없는 가정을 쓴 웃음과 함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슬러 올라가보니 차 유리가 깨지는 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이란 게 단순히 차와 돌조각의 만남만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그릴 수 없는 수많은 원인과 원인들이 얽히고설켜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 많은 원인들 중 어느 것 하나만 어긋나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생기고 마니 우리가 살아가며 맺게 되는 인연들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일체지자(一切智者)께서만 아실 수많은 생의 셀 수 없는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들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당장 나 하나의 존재가 이생에 태어남도 부모님 2분, 조부 4분, 증조부 8분 등 10대조까지만 올라가도 2^{10}=1024분의 인연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결과다. 그러니 그렇게 태어나 어떤 누군가와 인연을 맺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다.

흔히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게 되는 것은 바다 거북이가 숨 쉬러 바다 위에 고개를 내밀었을 때 때마침 거길 떠다니던 구멍 난 판자에 목이 끼이는 것과 같이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라 하였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그분의 가르침과 인연 맺게 됨을 소중히, 그리고 기쁘게 되새겨본다.

社說

'즐거운 보시' 불교 살린다

2013년 통계청이 조사한 기부참여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43.5%로 미참여자의 28.2%보다 15% 이상 높았다. 기부와 행복은 서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빨간 코의 날'이란 기부의 날을 지정해 마치 축제처럼 온 국민이 이 날을 즐기며 모금운동을 벌인다. 모든 가정과 학교, 심지어 거리에서도 코를 붉게 만든 재미있는 행사가 펼쳐지고 사람들은 SNS 등을 통해 이를 유쾌하게 전한다. 이날 빨간 코를 판매한 수익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하며 영국 정부는 이 수익금을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고 한다.

2015년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사찰 신도 보시 및 기부인식 조사'에 따르면 사찰 보시금의 형태는 불전함 보시와 인등기도비, 각종 재 기도비 및 신도회비 등으로 구성돼있었다. 신도 92.4%가 사찰에 보시금을 내지만 대부분이 기도비였던 것이다.

한번 되돌아 생각해보자. 자신을 위해 기도비를 낸 뒤,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가?

최근 불교계는 사회복지기관과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기부자들이 즐길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찰에서는 단순한 보시문화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는 사찰도 바뀌어야 한다. 불자 수는 이미 감소하고 있고, 지역사찰에서는 보시금 감소로 재정이 바닥이라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에 따라 사찰의 사회적 역량도 감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교가 살기 위해서는 불교가치를 알리기 위한 목적사업을 신도들에게 공지하고, 이에 대한 동참을 이끌기 위한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담긴 보시캠페인이 진행돼야 한다.

변화의 동국대를 기대하며

동국대가 83년 만에 교훈을 바꿨다. 지난 5월 1일 열린 개교 111주년 기념식에서 동국대는 새로운 교훈인 '지혜(智慧) · 자비(慈悲) · 정진(精進)'을 공식 선포했다.

본래 교훈은 자리이타를 상징하는 '섭심(攝心) · 신실(信實) · 자애(慈愛) · 도세(度世)'였지만 1934년에 제정된 기존 교훈이 다소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다. 이에 교훈재정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새 교훈을 제정했다.

지혜와 자비, 정진은 모두 불교의 실천행인 육바라밀에 해당된다. 어떻게 보면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동국대 의료원은 '의료원 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을 총괄하는 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맡았으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개혁추진단장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일산병원, 일산한방병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개혁을 주도하게 된다.

추진단의 "의료원 발전을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불의와 결탁하지 않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매진하겠다"는 다짐에서는 동국대 발전을 위한 결연함이 엿보인다.

지금은 변화 · 변혁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비롯된 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도전이 없으면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다. 도전만이 변화를 가져온다.

83년만에 교훈을 바꾸고, 의료원 개혁을 위해 다시 뛰는 동국대의 도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